

1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6월 4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 상정일자 :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 6월 2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재단법인인 대구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1항 단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3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홍병탁)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6조는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
- 그밖에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부 단어의 용어 변경 등 자구 수정으로 조문을 재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²⁵⁾에 따라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대구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기준에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음.

25)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3356(2017.6.28.)호 「도시재생, 건축,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²⁶⁾에서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²⁷⁾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의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6월 현재

- 대구문화재단은 당연직 2명(이사장 : 대구시장, 이사 :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포함한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현황은 남성 13명, 여성 3명으로 남성비율이 81%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의 이념을 대구시의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정책 및 의사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재단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능력 있는 여성 임원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26)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이라는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예술계 분야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두 재단의 현 임원 비율이 남성에게만 쏠려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향후 신규 임원의 임명부터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전문식 인사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하기 바람.		현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의 임명부터는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